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9.(화) 11:00 < 1.10.(수) 조간 > 배포 2024. 1. 9.(화)

푸른 용의 해,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섬유패션 산업 재도약 다짐

- 2024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섬산련)는 1.9(화)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섬유패션업계는 매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산업 전망 등을 공유하고, 중점 투자 분야 및 추진과제에 대해 업계 간 동향을 공유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승렬 실장은 신년 인사 말씀을 통해 지난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수출부진 등으로 우리 섬유패션업계에는 어려운 시간이었다며,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설비투자를 지속하는 등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 실장은 올해 역시 세계(글로벌) 고금리 기조,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의 위기 요인이 남아 있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은 한국패션 선호 증가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국내 섬유패션 산업이 재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가자고 언급하며, 정부는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환, 첨단산업용 섬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제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오 회장은 신년 인사 말씀에서,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염색가공 등 6개 품목의 뿌리 산업 지정 등 업계 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2023년도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올해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정부,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당면 애로 해결을 위한 사령탑(컨트롤 타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280)
		담당자	사무관	윤지수 (044-203-42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